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26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연휴 앞두고 강세..다우 이틀째 최고가

- 미국증시 주요 지수 상승: 다우 연이틀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사상 최저..기대 인플레는 상승
- 케빈 워시 연준 신임 의장 공식 취임..내달 16~17일 FOMC 주재

Summary

미국증시 상승: S&P500 8주 연속 상승

5월 2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연준 내 주요 인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과 그를 뒷받침하는 기대 인플레 상승 소식이 잇따랐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미국가 이란 사이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상승 마감. 다만 마감을 앞두고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다소 약화돼 주요 지수 오름폭도 축소.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는 0.58% 상승한 50,579.70에 마감해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 S&P500 지수는 0.37% 상승한 7,473.47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19% 상승한 26,343.97에 거래를 마감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91% 상승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66% 하락한 16.59에 마감.

(다우 +0.58%, 나스닥 +0.19%, S&P500 +0.37%, 러셀2000 +0.91%)

월러 이사의 매파적 발언

미 연준 내 주요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발언. 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더 높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성명에서 '완화 편향'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함. 그는 또 "가까운 시일 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약해지지 않는다면, 특히 최근 일부 상승한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치들이 불안정해지는 조짐을 보인다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기대 인플레 상승

월러 이사의 발언에서도 언급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 5월 설문조사 확정치에서도 상승세를 보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4.8%를 기록해 앞서 발표된 예비치 대비 0.3%p 상향됐으며, 5~10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로 0.5%p 상향됨. 전달 확정치에 비해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0.1%p,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0.4%p 각각 상승해 장기 기대 인플레 상승폭이 컸음.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

함께 발표된 5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44.8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 예비치 48.2에 비해 크게 하향됐을 뿐 아니라 사상 최저치. 주요 구성 항목 중 현재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전달 대비 6.7포인트 급락했고 향후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4.0포인트 하락. 미시간대는 "저소득층 소비자의 심리 악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유가와 기타 필수품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

미국-이란 종전 협상 기대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의 '키 맨' 역할을 하는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날 이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이는 양국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읽힘. 실제 이란 외무부 역시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무니르 사령관의 이란 방문은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인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라고 밝힘. 다만 그는 "합의에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이란과 미국 사이 견해의 차이는 매우 크고 깊다"고 말함. 장 마감까지 합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마감을 앞두고 경계감이 다소 확대되기도 했음. 미국 내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으며 대규모 군사 작전까지 고려했다고 그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한편 이날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의 뒤를 잇는 케빈 워시 11대 신임 연준 의장이 공식 취임함. 워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연준의 사명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식에서 "워시 의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이는 연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워시 의장이 휘둘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읽힘. 신임 워시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다음달 16~17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그가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가 될 예정. 한편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로 남게됨.

특징종목

반도체주 강세..퀄컴이 주인공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다만 엔비디아(-1.90%)와 브로드컴(-0.1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46%)가 하락하고 샌디스크(-4.12%), 웨스턴 디지털(-0.45%) 등 스토리지 업체가 약세를 보인 반면 퀄컴(+11.60%)이 급등하는 등 업종 내 종목 등락의 양상은 다소 변화한 모습.

최근 나타나고 있는 퀄컴의 급등세는 AI를 클라우드가 아닌 개별 기기에서 직접 처리하려는 이른바 '온 디바이스 AI'를 향한 하드웨어 시장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읽힘. 퀄컴은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다진 역량을 디바이스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시각 21일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와의 파트너십 역시 이 같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해석. 퀄컴은 나아가 오는 하반기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 'AI200'과 'AI250'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 AI 생태계 내에서의 그 확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모바일 분야의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존재. 퀄컴 주가는 최근 한 달 사이 75% 폭등,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

AMD(+3.99%)의 폭발력에도 최근 시장은 주목하고 있음.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AI 시장이 AI학습에서 실제 서비스 운영 단계인 추론 AI와 에이전틱 AI로 이동하면서 연산 능력보다 메모리 성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고성능 CPU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최근 AMD가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배경. 한편 이날 로이터와 CNBC 등 주요 외신은 AMD가 공급망 용량 선점을 위해 대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힘. 글로벌 반도체 조립, 테스트 기업 앰코 테크놀로지도 AMD의 차세대 칩 패키징 물량을 확보.

이외 온 세미컨덕터(+6.01%), NXP 세미컨덕터(+5.71%) 등 아날로그 전력 반도체 회사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9% 상승해 나흘 연속 강세를 이음.

PC 수요 예상보다 견조..델, HP 급등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왔던 PC 제조사가 급등. HP(+15.25%), 델 테크놀로지스(+16.77%). 경쟁사 레노버의 분기 보고서가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되었고 레노버는 홍콩 시장에서 19.77% 급등함. 이에 HP와 델도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지우며 강세. 특히 AI 서비스에 대한 활용이 기업 환경에서 확대되는 만큼 AI PC에 대한 기업 교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련주 강세를 견인. 델과 HP는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

자동차주 강세, 포드가 견인

자동차주가 동반 상승. 특히 포드 모터(+9.22%)가 급등하며 업종 분위기를 견인했는데, 포드는 SK온과의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고 켄터키 1, 2 공장을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기지로 전면 전환하기로 함. 앞서 이달 초 신규 에너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설비를 데이터 센터와 유틸리티 기업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로드맵 안에서의 행보를 보이는 중. 관련해 프랑스 전력 공기업 EDF 그룹의 북미 지사를 첫 고객으로 확보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전력망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 제공자로의 변화를 차근차근 진행 중.

유사한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인 GM(+2.05%) 역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강

세. 테슬라(+1.95%)는 중국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강세.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 등도 함께 반영하는 모습.

양자 컴퓨팅 관련주 강세 지속

미국 정부가 AI에 이어 양자 기술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점찍고 대규모 자금 지원과 함께 지분 확보에까지 나선다는 소식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급등세가 이틀째 지속.

아이온큐(+8.07%), 디 웨이브 퀀텀(+14.212%), 퀀텀 컴퓨팅(+7.89%), 리게티 컴퓨티(+19.87%), 인플렉션(+11.22%), 아킷 퀀텀(+6.32%), IBM(+0.34%).

이외 특징주

메타 플랫폼스(+0.47%)가 새로운 앱인 포럼을 출시. 인터넷 사용자들이 모여 토론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 앱이 출시되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딧(-5.58%) 주가는 약세.

화장품 업체 에스티 로더(+11.92%)는 스페인 향수 업체 푸이그와의 합병 가능성을 철회한 가운데 전일 마감 이후 시간외 거래에 이어 정규장에서도 급등. 합병과 관련한 비용 부담과 이후 결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을 털었다는 평가. 2025년 5월 중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

금융 및 인사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워크데이(+5.16%) 주가는 예상보다 강한 실적과 함께 연간 마진 전망을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강세.

머크(+5.63%)는 중국 켈룬 바이오텍과 공동 개발 중인 폐암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종양 진행 위험을 65% 줄였다는 결과 공개와 함께 상승폭을 확대.

할인 유통업체 로스 스토어스(+8.11%)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를 10억 달러 확대한다고 밝힌 이후 큰 폭 상승. 소비자 심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지만 때문에 저가형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함.

발전기/전력 솔루션 업체 제네락 홀딩스(+9.02%)는 제프리스가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 제프리스는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가 제네락의 핵심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중국 정부가 불법 해외 증권 거래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홍콩 기반 증권사 푸투(-27.53%)가 급락했고 이외 핀둬둬(-3.34%),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1.12%), 바이두(-2.58%), JD닷컴(-3.02%) 등이 동반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단기물 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은 상승했고, 장기물은 하락하는 엇갈린 흐름을 보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낙관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짐. 다만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물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조사에 포함된 단기/장기 기대 인플레 확정치가 예비치와 전달 수치 대비 상향되는 등 대체로 상승세를 보인 영향을 반영해 상승함.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역시 단기물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이날 채권시장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오후 2시 조기 마감해 장 후반 다시 고개를 든 종전 협상 관련 불안은 반영하지 않았음.

2년물 국채 금리는 3.6bp 상승한 4.123%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7bp 하락한 4.559%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4.40bp 하락한 5.066%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30.6%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2.5%,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27.0%를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를 기록함.

한편 최근 국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추이와 맞물린 유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준을 높인 상황. 전쟁이 종식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금리 역시 안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음. 다만 현지시각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미 국채 10년물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던 2022년 상반기 대비 50bp 낮은 수준이며 5년물 5년 선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난해 말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적. 즉,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가 없는데 장기채 금리가 급등한 것은 유가와 관세, 임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보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하는 것. 정부 부채 증가와 더 높은 중립 금리 가능성, AI 투자 확대 등이 실질 금리를 끌어올려 최근의 장기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크다면 전쟁 이슈의 향방과 금리의 진정 여부가 꼭 고리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

달러 가치 이틀째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틀 연속 상승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연준 주요 인사의 발언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역시 강세 압력을 받았으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낙관론은 달러 강세 정도를 제한함.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0.122% 상승한 99.289를 기록. 장 초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 이후 99.4를 넘기기도 했지만 오름폭 축소함. 달러-엔 환율은 엔화의 상대적 약세 속에 장 중 159엔대를 중심으로 등락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19% 하락한 1.160달러로 달러 강세를 반영함.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17.20원 대비 0.2원 상승한 1,519.40원에 마감. 현지시각 22일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45원)을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1,517.20원 대비 3.60원 상승한 1,519.35원을 기록.

WTI 4거래일 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주시하는 가운데 4거래일만에 반등.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26% 상승한 배럴당 96.60달러에 마감함. 브렌트유도 4거래일만에 반등해 7월물이 0.94% 상승한 배럴당 103.54달러에 거래를 마침. 주간으로는 WTI 기준물이 8.4%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5.2% 하락함.

국제 금 가격은 금리 인상 베팅이 강화되며 하락 마감.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0.59% 하락한 트로이 온스 당 4,515.50달러에 마감.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0.7% 가량 하락해 온스당 76달러 초반대를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